메트로 2012년 12월 21일 금요일 제2635호

News p/02

대선 끝나자 식탁물가 들썩

메트로 2012년 12월 21일 금요일 제2635호

Entertainment p/30

'빅2' 일본서 1000억 매출

주인찾은 물음표 자리 20일 서울 종로구 단의동 선거관수원 외벽에서 한 백하진문가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포스터를 그리고 있다. 선거연수원은 국민들로부터 공모한 선거와 관련된 그림, 만화 서 등으로 청사외벽을 새롭게 단장하면서 한혁 비한이 벽다 대통령 선거포스터를 작석했다. /뉴시스

대통합 이끌 '소프트근혜리더십'

세계는 지금 여성 지도자 시대… 朴의 '부드러운 카리스마' 큰 기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국민과 함께 이뤄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20일 당선 후 첫 대국민 메시지로 상생과 대통합의 의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이날 시민사회는 박 당선인에게 여성 특유의 '소프트 리더십'으로 국민 통합과 불황 탈출을 이끌어주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여성 참여연대는 "박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은 절반의 국민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석패한 상대 후보가 얻은 득표수가 어느 선거보다 많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사회연대는 "국가기관의 일탈과 부정·비리, 권력형 부패는 엄단해야 한다"면서 "새 정부가 인권과 복지, 경제민주화,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 여권, 시민사회와 폭넓은 대화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선을 계기로 '소프트 리더십'으로 세계를 이끄는 여성 지도자들이 주목받고 있다.

우선 박 당선인은 1979년 영국 최초의 여성 수상에 오른 마거릿 대처와 닮은꼴이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정치에 뛰어들게 됐다는 점과 강한 의지와 추진력으로 위기를 타개해 나갔다는 점, 여성으로서 당대 표를 지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철의 여인'으로 불리며 수상 재임 당시인 82년 포클랜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대처 전 수상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90년까지 최장기 수상을 역임했다. 92년 상원의원으로 활동한 뒤 은퇴했다.

또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의 사례도 주목받고 있다. 뛰어난 정치감각과 조율의 리더십으로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독일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전자공학을 전공한 박 당선인처럼 메르켈 총리도 물리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이공계 출신이다.

줄리아 길러드 호주 총리도 미혼으로 호주 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됐다. 그가 의회에서 야권의 성차별주의와 여성 혐오주의를 맹렬히 비난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아시아에서는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꼽히나 이 밖에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등이 여성 지도자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배동호기자 eleven@metroseoul.co.kr

세계의 주요 여성 지도자

/연합뉴스

20대 여성 김모씨는 '결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도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일 뿐 주위의 시선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며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이라고 당당하게 말한다.

고등학생 이모군은 자신의 적성이나 특기보다는 취업이 잘 되는 학과에 진학하기로 했다. 집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데다 부모님과 대화도 안 통한다. 때때로 "이렇게 사느니 일찍 죽어버리는 게 나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결혼 안하고 동거 OK"

2030세대 60% 응답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결혼관이 점점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12 사회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20~30대 남녀의 60%는 '결혼 없이 동거할 수 있다'고 답했다.

미혼 여성의 절반 이상은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고 답했다.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답변도 여자(56.6%)가 남자(69%)보다 적었다.

또 학생 10명 중 9명은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중·고교생들이 원하는 학력은 4년제 이상 대학 교육 61.6%, 대학원 석·박사 24.7%였다. 하지만 절반 이상이 경제적 이유로 원하는 교육을 못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적 이유는 10대들의 자살 충동도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세 이상 청소년 가운데 '올해 한 번 이상 자살을 생각해 봤다'는 비율은 무려 9.1%였다. 연령대별로는 10대(12.1%)와 20대(9.3%), 50대(9.3%) 순이었고, 자살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39.5%)이었으며 가정불화(13.6%)와 외로움(13.0%) 등이 뒤를 이었다.

/장윤희기자 unique@

대선 끝나자 물가 들썩

참이슬 8.19% · 밀가루 8.7% 인상 뒤이어 신선·가공식품 줄줄이 대기

소주 '참이슬' 값이 오른다. 밀가루 가격도 뛰었다. 대선이 끝나기 무섭게 식탁 물가가 요동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22일부터 소주 출고 가격을 4년 만에 8.19% 인상한다고 20일 밝혔다. 참이슬과 참이슬 클래식(360㎖)의 출고가격은 병당 888원에서 962원으로 73원 오른다.

이날 동아원 또한 오늘(21일)부터 밀가루 출고가를 평균 8.7% 인상한다고 밝혔다. 업소용 포장제품 20kg을 기준으로 중력1등급은 1만6600원에서 1만8150원으로, 박력 1등급은 1만5850원에서 1만7330원으로 각각 9.3%씩 비싸진다.

두부와 콩나물 가격도 인상이 예고돼 있다. CJ제일제당은 최근 대형마트 등 소매점에 두부·콩나물·조미료 등의 가격을 10%가량 올리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풀무원 또한 두부와 콩나물 가격을 각각 7~10%가량 인상하기로 일부 소매점과 협의 중이다.

여기에 신선식품 가격까지 뛰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배추의 평균 소매가격은 포기당 3416원으로 지난해보다 181% 올랐다. 무도 개당 2169원으로 지난해보다 83% 비싸졌다.

/전효순기자 hsjeon@metroseoul.co.kr

새해는 너희들 세상 계사년 뱀띠 해가 열흘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0일 경기 용인 에버랜드 동물원 사육사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특별 전시될 알비노 버미즈비단구렁이를 선보이고 있다. 이 비단구렁이는 길이 2~2.5m, 무게 15~20kg이다. /뉴시스

7000만원 까먹은 과천아파트 주인

2012년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억7762만원으로 지난해 연말 대비 약 1000만원 더 낮아졌다.

20일 부동산114가 경기 및 인천 소재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2011년 12월 말 기준 2억8837만원이었던 아파트 값은 현재(2012년 12월 14일 기준) 2억7762만원으로 1075만원 하락했다. 이는 2010년 말에 비해 2011년 말 아파트 1채당 평균 매매가격이 317만원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세 배가량 하락한 가격이다.

지역별로 정부청사 이전과 매수세 침체 영향을 받은 과천이 가장 크게 떨어졌다.

과천은 지난해 7억1204만원이었던 1채당 평균 매매가격이 7396만원 하락한 6억3808만원이다. 정부청사 이전과 재건축 시장의 침체를 비롯해 보금자리지구 등의 요인으로 가격 하락폭이 컸다.

과천 원문동에 위치한 공인중개사무소는 "취득세 감면 조치로 그동안 나왔었던 급매물이 반짝 거래되는가 싶더니, 다시 매수세가 주춤해졌다"고 하소연했다.

/김자선기자 azyhan@

62만명 6년 추적 '돈 있으면 오래 산다' 입증

'돈 있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통설이 입증됐다.

경제적 수준이 하위 10%인 사람의 사망 위험이 상위 10%인 사람에 비해 2.3배가량 높다는 사실이 대규모 추적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연세대 의대 보건정책 관리연구소 김지만 교수팀은 2006년 당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면서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중 건강상태가 양호한 62만5265명을 경제적 수준에 따라 10등급으로 나눠 2011년까지 6년으로 추적 조사한 결과 평균 수명까지 살 경우 최하위 등급의 사망 위험이 최상위 등급보다 2.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연구팀은 개인별 경제력 차이가 각종 사회적 지원에 대한 접근성에 영향을 미쳐 사망 위험에 편차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했다.

/박상준기자 zenK

'국민 행복감' 한국 97위 상위권은 중남미 국가들

세계에서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국민은 파나마·파라과이 등 중남미 국민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해 148개국에서 각각 15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느낀 긍정적 감정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파나마와 파라과이 국민은 85%가 그렇다고 답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으며 엘살바도르·베네수엘라·트리니다드 토바고 등 중남미 국가들이 10위권에 들었다.

한국은 63%가 그렇다고 답해 그리스·몽골·카자흐스탄·체코 등과 함께 공동 97위를 기록했다.

/김문라기자 grace1@ok

‘軍복무 18개월로’ 단축방안 재검토

朴당선인 공약이행 추진

국방부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사항인 병사 복무기간 단축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21개월(육군 기준)인 병사 복무기간을 당장 18개월로 줄이면 병역 자원이 모자라는 문제가 생긴다"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참여정부 때 결정된 18개월 단축 계획을 병역 자원 부족과 군 전투력 약화 방지를 이유로 지난 2011년 2월부터 21개월로 동결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정책적으로 (복무기간 단축) 계획에 대해서 정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내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때 다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병사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였을 때 부족한 병역 자원을 부사관 증원과 유급 지원병 확대 등으로 보충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국방부는 박 당선자가 공약한 사병 월급 2배 인상과 관련해서도 예산 확보 방안 등을 연구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희기자 grass100@metroseoul.co.kr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6일 개관 20일 서울 세종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개관 기자간담회 및 설명회에서 한 관람객이 대한민국 자동차 1호 현대 '포니'를 관람하고 있다. 역사박물관은 26일 개관 행사를 시작으로 27일부터 일반 관람객들에게 공개된다. /연합뉴스

만화 ‘고바우 영감’ 문화재 된다

우리나라 최장수 시사만화 '고바우 영감'이 문화재로 등록된다.

문화재청은 자료적 가치가 큰 김성환의 '고바우 영감 원화'<그림>, 김용환의 '토끼와 원숭이', 김종래의 '엄마 찾아 삼만리 원화' 등 근대만화 작품 3건을 문화재로 20일 등록 예고했다. 문화재청이 근대 만화 작품을 문화재로 등록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50년 '사병만화'에 첫 등장한 김성환(80) 작가의 고바우 영감은 1955년 2월 1일부터 동아일보, 조선일보, 문화일보 등을 거치며 모두 1만4139회 연재된 우리나라 최장수 시사만화다. 이 중 김 작가가 지닌 원화 6496매와 동아일보 소장의 4247매 등 총 1만743매가 문화재로 등록 예고된다. /장윤희기자 unique@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734> 글·그림 박상철

소설가 피츠제럴드 사망

1940년 12월 21일 20세기 전반 미국 소설을 대표하는 걸작 '위대한 개츠비'의 작가 F. 스콧 피츠제럴드가 그의 마지막 작품을 집필하던 중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1차 세계대전 참전 후 취직한 광고회사를 그만두고 글쓰기에 몰두한 그는 처녀작 소설 '낙원의 이쪽'이 성공하고 3년 후 '위대한 개츠비'로 세계적 명성을 얻었으나 호화생활과 술에 찌들었다. 아내의 신경쇠약증과 작품의 연이은 실패,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절망한 피츠제럴드는 멈추지 않고 단편을 발표했지만 회복 불가능한 알코올 의존자가 되고 말았다.

민주 '멘붕'… 安신당 뜨나

미국 도착한 안철수 "정치 한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민주통합당이 대선 패배 후 공황 상태에 빠졌다.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는 20일 캠프 해단식 일정만 급히 잡았다. 지도부 퇴와 등은 모두 생각했다. 당의 정상화를 위한 수습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선장을 잃은 난파선처럼 갈 곳을 찾지 못한 형국이다.

당 내에서는 정권교체 실패에 따른 거센 후폭풍이 가시화되는 동시에 쇄신에 대한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나아가 정계 개편 등 야권 새판짜기 가능성도 부상하며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가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비주류 일각에서는 안 전 후보가 정치개혁의 아이콘이자 새 정치의 대명사인데다 기성 정치권의 물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 환골탈태와 강도 높은 정당 쇄신의 적임자라는 말까지 나온다.

안 전 후보가 민주당을 비롯한 기존 정당 쇄신에 적극 나설지는 의문이다.

본편 투표 후 미국으로 출국한 안 전 후보는 이날(한국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해 "(정치는) 제가 안 한다고 말하지 않았나"며 정치에 대한 의지를 밝혔으나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김동희기자

朴 첫마디 "화해·대탕평"

"모든 지역·성별·세대 등용…분열과 갈등의 고리 끊겠다"

당선증 들어보이는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 참석, 대학생 대표에게 당선증을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 한 분 한 분의 행복과 100%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저의 꿈이자 소망"이라며 "100% 대한민국 국민대통합"을 예고했다.

박 당선인은 20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 각 분야에 걸친 국정 운영 방향의 일단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당선인은 "과거 반세기 동안 극한 분열과 갈등을 빚은 역사의 고리를 화해와 대탕평책으로 끊도록 하겠다"며 "모든 지역과 성별, 세대의 사람을 골고루 등용해 대한민국의 숨은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 **"문재인에 곧 회동 제의"**

박 후보는 이날 선거 상대 후보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에게 전화를 해 축하에 대한 감사와 위로를 전했다. 박 후보는 통화에서 "치열하게 선거를 치렀지만 이게 다 국민의 삶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선택받고자 함이 아니었겠느냐"며 "그런 만큼 열으로 국민을 위해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고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다. 조만간 문 후보와도 회동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낙선자인 문 후보에게 회동을 제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국립묘지도 방문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기는 특정되지 않았으나 올해 안에 방문한다는 계획이다.

시대 전환기를 맞은 아시아권의 상생과 공생에도 박차를 가한다.

박 후보는 이날 성김 주한 미국대사와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 콘스탄틴 브누코브 주한 러시아대사 등을 잇따라 비공개 면담하며 4강 외교를 시작했다.

한편 박 당선인은 다음주 내 이명박 대통령과 회동할 것으로 보인다.

/김유리기자 grass100@metroseoul.co.kr

50대 투표율 무려 90% 박근혜 당선 '일등공신'

19일 치러진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높은 89.9%의 투표율을 보인 연령대는 50대로 나타났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20대로 65.2%에 그쳐 50대와 24.7%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높은 투표율이 박근혜 당선의 일등공신으로 조사됐다.

60대 이상은 78.8%로 두 번째로 많은 유권자가 투표에 나섰다. 40대는 78.7%, 30대는 72.5%여서 연령이 낮을수록 투표율이 낮았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 중 1575만여 표를 얻어 51.6% 과반 득표를 달성했다.

문재인 후보는 1467만여 표를 얻어 박 당선인에게 108만여 표 차이로 고배를 마셨다.

전국 투표율은 75.8%로 1997년 제15대 대선 80.7%보다 4.9%포인트 낮았지만 제16대 70.8%, 제17대 63.0%보다 각각 5%포인트, 12.8%포인트 높았다. /채동오기자 elevee@

전방 애기봉 성탄 점등 국방부 내일 전격 강행

국방부는 장병들의 종교활동 차원에서 22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애기봉 성탄 점등을 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지난 11일 국방부는 대선을 앞두고 점등 행사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점등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지 하루 만에 이를 번복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기 김포시 서부 최전선에 위치한 해발 165m 애기봉은 군사분계선과 600m 거리로 북한 주민들이 30m 높이의 등탑 불빛을 육안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은 '괴뢰들의 반공화국 심리전 아리어 점등 행사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연합뉴스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중구 소공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561
발행인·편집인 남궁호
사원 편집인 김 ○ 학
광고국장 직대 김 ○ 일
서울광고문의 02)721-9861 3
부산광고문의 051)559-2180
독자센터 02)721-9862

"위험한 이웃 당연히 도와야죠"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번화가. 김모(30)씨가 지나가는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두르면서 평화로웠던 퇴근길이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상황을 목격한 이각수·계진성씨는 맨몸으로 피의자 추격에 나섰다. 강남섭씨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시민들을 위해 자신의 옷을 찢어 응급처치했다. 이들의 나이, 직업은 모두 달랐지만 위험을 딛고 발휘한 희생정신은 한마음 한뜻이었다.

'여의도 칼부림' 맨몸 제압한 이각수 교수 등 50명 생명보험재단 사회적 의인에… 2억5천만원 지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지난 8월 여의도에서 발생한 '묻지마 칼부림' 사건에서 시민들의 생명을 구한 여총각두기 세계챔피언 출신 이각수 명지대 교수 등 총 50명을 '2012 사회적 의인'으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생명보험재단 관계자는 "올해 사회적 의인으로 꼽힌 이각수 교수의 경우 흉기를 든 범인을 무술로 제압하여 추가 피해를 막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열린 시상식에서 이 교수는 "흉기를 든 사람이 시민을 마구 찌르고 있어 그냥 두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이웃과 동료들을 돕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생명보험재단은 이 교수 외에도 급류에 휩쓸리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여명준씨 등 일반인 12명과 화재 진압 중에 건물에서 추락해 순직한 김영식 소방위 등 소방관 20명, 범인을 검거하다 피격당해 순직한 최기연 경사 등 경찰관 17명도 사회적 의인으로 선정했다.

생명보험재단 정봉은 상무는 "2010년부터 시작된 '사회적 의인 지원사업'은 급박한 상황에서 국가와 타인을 구하기 위해 헌신한 인물을 발굴, 지원한다"면서 "의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널리 알려져 우리 사회가 더욱 밝고 아름다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0년에는 천안함 실종자를 구조하던 중 순직한 고 한주호 준위가, 지난해에는 석해균 선장이 각각 사회적 의인으로 선정됐다. 사회적 의인은 경찰, 소방, 일반인 부문으로 나뉘어 선정되며 총 2억5000만원의 지원금이 전달된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2012 생명보험의인상 시상식

지난 18일 생명보험재단 서울 서린동 본사에서 열린 '2012 생명보험 사회적 의인상 시상식'에 참석한 수상자들과 정봉은(가운데) 상무. /생명보험재단 제공

당신의 자리입니다.

서울예술대학교 한국음악과
2013학년도 정시 모집
2012.12.21(금) – 2013.1.2(수)
www.seoularts.ac.kr

인권조례 손보고 혁신학교는 유지

문용린 신임 교육감 '곽노현표 정책' 대폭 수정 예고

문용린(사진) 서울시교육감 시대가 열리면서 학생인권조례가 가장 먼저 수정될 전망이다.

곽노현 전 교육감의 정책도 전면 재검토되지만 18개월의 짧은 임기가 한계로 지적된다.

20일 오전 문 교육감은 "곽 전 교육감의 정책이 교육의 본질과는 너무 동떨어져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다"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서울시 교육 전면 전환을 예고했다.

또 "가장 먼저 보완해야 할 정책은 서울학생인권조례"라며 "교사의 지도력을 훼손하고 학생 간의 갈등만 낳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조례 개·개정권을 가진 서울시의회의 과반이 민주통합당 의원이라 학생인권조례 전면 수정은 어려울 것"이라며 "두발 제한 금지 등 논란이 되는 일부 조항 위주로 변화가 있을 전망"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혁신학교, 자율형사립고와 고교선택제, 일제고사형 학업성취도평가 등의 기존 정책은 큰 변화 없이 추진된다.

이밖에 문 교육감은 공약으로 내건 중학교 1학년의 시험 단계적 폐지, 특목고와 자사고에 밀린 일반고 지원 대책 강화, 인권조례로 떨어진 교권 회복 등의 실천을 다짐했다.

한편 1년6개월의 짧은 임기는 문 교육감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문 교육감의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다.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문 교육감은 "임기가 짧아 많은 일을 추진하기 힘들다는 점을 안다"면서도 "시범 운영을 통해 가능성을 엿 볼 수 있는 일부터 하고 확대할 것은 임기 중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메트로신문-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동캠페인 '함께해요! 장애인 고용'

스포츠의류 전문업체 벨카비는 높은 장애인고용률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15명의 장애인 직원이 비장애인 직원과 똑같이 기획, 제조, 판매 등 전 공정에서 주된 업무를 맡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공

장애인 직원이 주축인 회사

④ 스포츠의류기업 벨카비

지난 2003년 설립된 (주)벨카비는 바이크웨어, 등산복 등을 만드는 스포츠의류 전문 제조업체다. 2009년 자체 바이크웨어 전문 브랜드 '쿠온'을 출시한 벨카비는 최근 스포츠의류 시장의 성장과 함께 생겨난 기업 중에서 가장 높은 장애인 고용률로 주목받고 있다.

◆ 장애인 중심 기업문화 창출

벨카비는 올해 6월 현재 전체 55명의 직원 중 15명이 장애인이며 이 중 14명이 중증장애인이다. 장애 유형도 지체장애, 지적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등 다양하다.

벨카비의 장애인 직원들은 특정 업무나 비장애인의 보조 업무가 아닌 기획부터 제조, 판매에 이르는 공정 전반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이는 의류업계를 통틀어 살펴봐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독특한 벨카비만의 기업문화다. 벨카비는 장애인 중심이 된 기업문화를 만든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서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 "삶의 기반 만들어줘야죠"

벨카비의 조시선 대표는 어린 시절 장애인 몇 동생과 함께 자랐다. 이러한 성장환경은 조 대표에게 장애인 고용을 시작하게 하는 자연스런 동력이 되었다.

전직원 55명 중 15명 보조 아닌 '중추' 역할

1년 숙련 거처 투입 직무교육 반복 실시

조 대표는 "기업의 설립 목적은 최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지만 벨카비는 조금 다르다"면서 "장애인들에게 삶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회사 운영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고 벨카비의 설립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벨카비에서는 법에서 정한 장애인의무고용률은 의미가 없다고 한다. 비장애인이 아닌 장애인 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회사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직원을 채용하고 그들에게 직장이라는 삶의 터전을 제공하기 위한 벨카비의 노력은 각별하다. 그중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은 장애 특성에 맞는 직무 교육이다.

입사한 장애인들은 1년의 충분한 숙련 기간을 거쳐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의류 제조업의 특성상 제품의 품질 유지와 납기일 엄수가 필수적인데 이런 직무 교육을 거친 장애인 직원들의 생산성은 비장애인 못지않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직무 교육은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는 제조업 분야에서 장애인 직원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이 반복 실시된다.

/배동호기자 elvis@

'입영일 선택' 선착순 접수

병무청은 입영 날짜를 본인이 고르는 2013 현역병 입영일자와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 선택 접수를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선착순 접수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병무청은 병역 의무의 자율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입영 날짜 본인선택제를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익근무요원의 본인선택제 공석은 내년 소집 계획 인원 2만715명의 약 58%인 1만2000여 명이다. 현역병은 연간 계획 인원의 69%인 8만6000여 명이다.

입영 연기자가 아닌 병역 의무자가 본인선택을 하지 않으면 병무청 직권으로 입영일자와 부대를 결정해 28일 병무청 홈페이지와 ARS(1588-9090)로 공개할 예정이다.

/장윤희기자

방송대 유학파들 "우린 학생 겸 강사"

현지인과 의사소통 '생생 불어' 교육

■ 방송대 불어불문학과는

국제 공용어이자 고급 문화어의 위상을 확립하고 있는 프랑스어는 정치 경제적으로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어다.

불어불문학과는 프랑스어의 기초부터 시작해 현지인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에 중점 둔 강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랑스어 문법, 작문, 발음 등 언어 교육을 위한 기초 학습부터 프랑스 문학, 시사, 문화·예술 등 언어 사용을 풍부하게 해줄 배경지식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 과정을 구성했다.

구체적이고 생생한 프랑스어를 교육함으로써 졸업 후 언론, 출판, 금융, 교육 및 관광, 무역, 예술 등 사회각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출 수 있다.

문의 02)3668-4580
http://french.knou.ac.kr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지혜 나눔-인생 배움 캠페인 ⑪ 불어불문학과 스터디그룹

한국방송통신대 불어불문과에는 열심히 공부해 장학금을 받는 등 학업성적이 우수한 해외파 학생이 화제다.

"프랑스에서 15년을 살다오니 한국어가 서툴렀다"며 "한국어를 배울 겸 대학을 다닐 때 반복적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방송대가 적격이라 생각해 입학했다"는 불어불문학과 3학년 옥대경(23)씨.

옥씨는 어머니와 함께 수업을 듣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어머니는 옥씨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함께 입학했다. 모녀가 함께 수업을 받으러 다니는 모습에 주변에서 의아해하기도 한다.

옥씨는 "어머니와 친구처럼 지내왔다"며 "오히려 학업으로 인해 대화할 주제가 많아진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학생인 옥씨의 또 다른 직함은 프랑스어 강사다. 옥씨는 올해 입학한 후배들을 위해 스터디 그룹에서 활동한다. 물론 후배들을 위한 무료 봉사다.

옥씨는 "지난 3월 오리엔테이션 이후 결성된 스터디 그룹에서 1학년들과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오후 1시까지 2시간씩 소설을 같이 읽거나 기초 문법을 다진다. 시험을 앞두고 학교 교재를 바탕으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함께 공부한다"고 말했다.

옥씨는 "후배들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막상 우리 문화나 친구들을 사귈 기회라 도움을 받는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며 겸손하게 말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꿈이라는

한국방송통신대 불어불문학과 스터디 그룹 학생들이 화려한 나들이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프랑스서 살다온 학생, 후배들 공부 도우며 한국 적응
40대 몽골인은 장학금 받으며 학과생활도 솔선수범

옥씨는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좋다며 대안학교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어 소리와 문화에 반해 입학한 1학년 김잔영(19)씨는 "프랑스어 회화를 배우고 싶어 스터디를 하자고 했는데 옥씨가 발음 지도뿐 아니라 선배로서 오빠을 아끌어줘 큰 도움이 된다"고 칭찬했다.

또 몽골에서 온 4학년 볼자 따다그마(44)도 프랑스어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내년 2월 졸업을 앞두고 있는 볼자는 외국에서 이미 대학을 졸업한 후 2009년에 방송대 1학년으로 입학한 인재다.

그는 "언어에 관심이 많아 한국어뿐 아니라 불어를 향한 꿈도 전 을 됐다"며 "방송대는 훌륭한 교수님과 교재뿐 아니라 학비도 일반 대학의 10분의 1 수준이라 현실적으로 꿈을 이뤄주는 대학"이라고 강조했다.

출석 수업과 시험을 위해 분당에 있는 성남시 학습관과 혜화역에 있는 서울지역대학을 주로 이용하는 볼자는 "1학년부터 교양과목이 만만치 않아 틈틈이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이라며 "방송대에 대학원이 개설돼 진학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

불어불문학과 관계자는 두 학생에 대해 "학과에서도 높은 학업 성취를 보이며 여러 번 성적우수장학금을 받았고, 학과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는 우수 학생"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유리기자

올림픽스케이트장에서
가족, 연인, 친구들과
멋진 추억 만들어 보세요!!
2012. 12. 14 ~ 2013. 2. 3
단! 스케이트장은 안전관리상
입장인원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올림픽 스케이트장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신한은행이
함께 합니다.

metro global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Russia | metro Colombia | metro HongKong | metro France

оскве выбрали
ую бабушку

"구두 닦으면서 문화 해설 들으세요"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의 구두미화원 115명이 '문화 해설가'로 변신했다. 이들은 예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신의 구역에 자리를 잡는다. 2000페소(약 1200원)를 받고 손님 구두에 광을 내며 농담을 주고받거나 최신 뉴스를 전하는 게 이들의 일상이다. 그런데 최근 보고타 시청이 도시 활성화 프로그램을 도입, 이들을 '보고타의 팁'으로 변모시켰다. 시민과 관광객은 이제 구두를 닦는 동안 보고타의 역사적인 장소와 사건 등 도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이혼하면 해고한다'는 황당한 회사

직원이 이혼하면 해고하겠다고 나선 황당한 회사가 있다. 최근 중국 선전시의 한 보석회사는 '직원이 이혼, 외도하거나 졸을 두면 즉시 해고한다'는 규정을 만들어 물의를 빚었다. 이에 일부 직원들은 '회사에서 사생활을 간섭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한 변호사는 "회사가 도덕적인 기준을 세우고 직원들이 기준에 부합되는 생활을 하도록 독려하는 것은 긍정적인 발상이지만 이 규정은 국민의 결혼과 이혼의 자유를 규정하는 '혼인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누가 할머니 좀 말려줘요"

러시아 '슈퍼 할머니 선발대회'…80대 고령에도 탭댄스·발레실력 과시 '눈길'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2012 슈퍼할머니 선발대회"가 열렸다.

대회 참가자들은 손자·손녀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집에서 파이를 굽는 평범한 할머니들이 아니다. 이들은 재능과 미모를 겸비한 '슈퍼 할머니'들이다.

치열한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슈퍼 할머니 후보 중에서도 84세 최고령 참가자는 단연 돋보였다. 그는 집시를 연상케 하는 정열적인 빨간 드레스를 입고 경쾌한 탭댄스와 러시아 집시 댄스인 '치가노치카'를 췄다. 또 자신이 직접 작곡한 노래를 열창해 큰 박수를 받았다.

다른 참가자인 예인리아 이바노브나는 아마추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완벽하고 화려한 무대 매너를 선보였다. 이바노브나 할머니는 흰 깃털 장식이 달린 하얀 발레복을 입고 무대 위를 사뿐사뿐 우아하게 걸었다. 180도 다리 찢기로 유연성을 과시하는가 하면, 발레리노 네 명의 도움을 받아 고난도 점프도 무난히 소화했다.

그의 무대를 본 심사위원들은 "도저히 할머니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대단하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관객들도 "참가자 모두가 창의적인 무대를 선보였고 큰 감동을 줬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할머니들은 대회를 준비하면서 느낀 기쁨이 정말 컸다고 말했다. 한 참가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화장을 하고 머리를 매만지고 인형 같이 긴 속눈썹을 붙여본 건 평생 처음"이라며 "젊은 시절로 되돌아간 것 같다"며 미소를 지었다.

이날 할머니 참가자들은 무대 뒤에서 서로의 옷 매무새를 다듬어주고 우승을 기원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우승은 예술적인 춤으로 관객을 매료시킨 '발레리나 할머니' 이바노브나가 차지했다. 그는 "대회에 참가한 우리 모두가 진정한 우승자이자 슈퍼 할머니"라며 "나는 쟁쟁한 참가자들 가운데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다리야 부야노바 기자·정리 = 조선미 기자

2030 젊은 농부 "농사도 비즈니스"

프랑스 내 농업인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35세 이하 '젊은 농부'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프랑스 농업인 수는 20%가량 감소했다. 지난해 농업인 수는 97만 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35세 이하 청년 농업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매년 1만 명의 청년들이 농업인의 꿈을 실현하고 있다.

샴페인 업계에서 일하는 마린 광통(21)씨는 "직접 포도를 재배해 샴페인을 만드는 데는 관심이 없다. 하지만 샴페인은 고급 수출품이기 때문에 일꾼을 고용해 나중에 큰 샴페인 회사를 운영하고 싶다"고 말했다.

광통은 현재 프랑스 북동부 도시 랭스의 한 대학에서 경영 및 국제무역학을 전공하고 있다. 그는 1962년 조부가 시작한 포도 농장을 물려받기 전 샴페인 업계에서 자신만의 경험을 쌓고 싶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농업 사회학자 이 프랑수아 퓌르세글은 "할아버지 세대가 장을 풀려줬고, 아버지 세대가 장을 경작했으며, 자녀들은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농업에서 농업 경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청년들이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농업에 뛰어들고 있다. 크리스토프 레네르트(34)는 한 회사의 마케팅 및 판매 담당자였다. 레네르트는 부모가 운영하던 전통적인 방식의 가축 농장을 물려받아 기업형 농장으로 변신시켰다. 그는 유제품을 가공해 신제품을 개발하고 인터넷 판매도 시작했다.

레네르트의 부모는 "우리는 농부 세대고, 땅은 비즈니스와 인터넷 세대"라며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했다.

/플린 기요드 기자·정리 = 조선미 기자

today metro global 지금 클릭! metroseoul.co.kr

- '스타 베이비' 이목구비 우월하네
- 은둠 파문은 죄수들 살벌한 시위
- 캐나다 유명 '모델 경찰견' 하늘로

33년 윤선생의 브랜드 프리미엄

검증된 스마트 베플 커리큘럼

지능형 맞춤학습 시스템 스마트 베플리

1:1 맞춤관리

생각보다 큰 공부방

쉽게! 크게!

우리집앞영어교실

우리집앞 영어교실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이 새로운 차원의

영어공부방 · 교습소를 시작합니다

KOSPI: 12/13 2002.77 · 12/14 1995.04 · 12/17 1983.07 · 12/18 1993.09 · 12/20 1991.50 (+6.41)

KOSDAQ: 12/13 488.15 · 12/14 491.53 · 12/17 485.48 · 12/18 483.13 · 12/20 479.71 (3.88)

지수	
Nikkei (일본)	10039.33 (-121.07)
Hang Seng (홍콩)	22659.78 (+36.41)
Shanghai (중국)	2168.35 (+6.11)
Dow Jones (미국)	13251.97 (-98.99)

EXCHANGE RATE	
달러	1073.50
엔(100)	1278.74
유로	1419.60
위안	172.36

200만 영세업자 '카드손님' 덜 밉겠네

내일부터 수수료율 변경
가맹점 83%에 인하혜택
인상되는 대형점포 '진통'

오는 22일 개정여신금융법 시행을 앞두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이 대부분 완료된 가운데 일부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 개정여신금융법의 핵심사항이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낮추고 대형 가맹점은 올리는 것이어서 이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20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최근 240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조정 통보를 마쳤다. 이의 제기가 없는 가맹점은 22일부터 새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카드사들은 수수료율 산정 체계를 고쳐 200만 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추고 6만 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높였다. 34만 개 가맹점은 현행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중소금융과장은 "수수료율 인하 대상 가맹점이 전체의 83%에 달한다"며 "매출이 적은 영세 자영업자에 인하 혜택이 집중됐다"고 말했다.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업종은 세탁소다. 1만2000개 가맹점 가운데 1만1900개(99.2%)의 수수료가 낮아졌다.

대형 가맹점도 수수료율 협상을 대부분 마쳤다. 현대·기아차 르노삼성 등 완성차 판매업체와 유니클로 등 대형 의류업체의 수수료율이 2% 안팎에서 정해졌다.

하지만 통신 및 손해보험 업계 등은 반발이 심해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어 금융 당국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가입자 부담을 늘려 손실률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개정법 시행이 어쩔 수 없이 남지 않아 우선 개정 원대로 수수료 인상률을 적용하되, 추후 재협상을 한 뒤 소급 적용해 카드회사가 가맹점에 초과분을 다시 돌려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김재성기자 kjs@metroseoul.co.kr

LTE요금도 묶으면 할인 KT는 인터넷TV '올레TV'가 출시된 지 4년 만에 가입자 400만 명을 돌파한 것을 기념해 'LTE 묶음할인' 요금제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인터넷·IPTV를 함께 쓰는 LTE스마트폰 고객에게 LTE 요금을 최대 1만원 할인해준다. /KT 제공

美특허청 또 "애플특허 무효"

배심원 인정한 '핀치 투 줌'
삼성, 법정서 유리한 고지

애플의 특허가 잇따라 미국 특허청(USPTO)으로부터 무효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향후 법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특허청은 20일 애플의 '핀치 투 줌' 특허에 대해 선행 특허가 있다는 이유로 잠정 무효 판정을 내렸다. 이 특허는 지난 8월 삼성전자에 10억5000만 달러(약 1조1400억원)의 배상 판정을 내린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배심원 평결에서 삼성전자의 침해가 인정된 6건의 특허 중 하나다.

당시 배심원단은 애플의 상용특허 3건, 디자인특허 3건에 대해 삼성전자의 침해를 인정하는 결론을 내렸다.

특허청은 침해 결정이 난 상용특허 중 바운스백 관련 특허에 대해서도 지난 10월 잠정 무효 판정을 내린 바 있어 배심원단이 침해 사실을 지적한 상용특허 3건 중 2건이 무효 판정을 받게 됐다. /서희준기자 jun@

기업 내년 설비투자 늘릴듯

내년 국내 설비투자는 올해보다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업종별로는 '음식료', '기계', '자동차'는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석유 화학', '가전'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500개 제조사를 대상으로 '2013년 설비투자 계획'을 조사한 결과 내년 설비투자 규모가 올해보다 평균 1.3%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해 투자 실적은 지난해에 비해 평균 1.0%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 설비투자 규모는 기업 규모별로 차이가 커 대기업은 4.5% 늘어나지만, 중소기업은 0.4% 줄어들 전망이다. /김재성기자

전세·생애 첫 주택 대출금리 낮아진다

서민전세자금·주택구입자금 등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가 종전보다 0.3~0.9%포인트 내려간다.

또 내년부터 기금 대출의 소득 여건 산정 기준을 부부합산 연소득으로 일원화하고 상여금, 수당 등 실질소득이 반영된다.

국토해양부는 시중금리인하를 고려해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와 청약저축 금리를 21일부터 인하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세자금 등 서민대출금리는 자금별로 현행보다 0.3~0.9%포인트 인하된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현재 연 4%에서 3.7%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4.2%에서 3.9%로 각각 낮아진다.

인하폭이 가장 큰 근로자서민 구입자금은 현행 연 5.2%에서 4.3%로 0.9%포인트 내려간다.

/박상훈기자 zen@

기초수급자 폰요금 더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이동전화 요금 감면 한도액이 기존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동전화 요금 감면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은 고시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년 1분기부터 시행된다.

겁없는 개미들 빚내 '놀자주' 샀다

YG·컴투스 등 코스닥 신용융자 증가 상위종목에… 기관 발빼 '조심'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엔터테인먼트주나 카지노주 같은 이른바 '놀자주'에 빚을 내서 집중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하는 신용투자는 주가가 급락할 경우 큰 손실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놀자주와 테마주는 최근 롤러코스터처럼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어 자칫 개인투자자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17일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신용융자의 잔고가 가장 많이 늘어난 상위 30개 종목 중 8개가 엔터테인먼트주와 모바일게임주 등 이른바 '놀자주'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신용융자 잔고가 증가한 상위 50개 종목 가운데 유가증권은 24%, 코스닥 시장은 18%가 지금까지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해 빚을 내서 투자했지만 손해를 봤다.

IBK투자증권 이선애 선임연구원은 "놀자주에 대한 투자는 기관 투자자들이 먼저 움직였고, 개인들도 돈을 빌려 따라나선 것"이라며 "투자가 몰리면서 버블이 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용융자 잔고 증가액이 가장 컸던 종목은 와이지엔터테인먼트였다. 이 종목의 지난 17일 기준 잔고 금액은 227억2000만원이었다. 2위는 모바일게임 개발업체인 컴투스가 차지했다. 올해 이 종목 잔고는 195억6000만원 증가했다. 또 다른 모바일게임주 위메이드와 게임빌도 각각 5위와 16위에 올랐다.

올해 '캔디팡' '슈가팡' 등 인기 모바일게임을 잇따라 출시했던 위메이드의 신용융자 잔고는 1년 새 127억8000만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게임빌의 잔고도 86억6000만원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막연한 기대감보다 기업 실적 및 업황 개선 가능성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형연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시장이 지역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신용융자 등을 통한 무리한 투자는 절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고재성기자 lazyhand@metroseoul.co.kr

와인트리 앞 '넘버원 보르도' 20일 오전 서울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모델들이 와인 트리 앞에서 무르드 뉴메로앵을 선보이고 있다. 뉴메로앵은 No.1이라는 뜻으로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은 보르도 브랜드 와인이다. /뉴시스

치솟은 기업 어음부도율

지난달 1년5개월래 최고

국내 기업의 어음부도율이 1년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0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2012년 11월 중 어음부도율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어음부도율(전자결제 조정 전)은 0.20%로 한 달 전(0.16%)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6월(0.21%) 이후 최고치다.

한은 관계자는 "증권사 등 어음이 만기 전에 교환 회부되는 등 특이 부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제외한 부도율은 한 달 전보다 0.0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0.17%)이 0.05%포인트 상승한 반면 지방은 0.05%포인트 하락한 0.40%로 나타났다. 지역 중에서 전남(0.58%)과 충남(0.75%)이 각각 0.32%포인트, 0.50%포인트 상승하면서 어음부도율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한편 신설 법인 수는 5987개로 한 달 전보다 368개 증가했다.

/박상훈기자 zen@

61세 넘으면 '라이나 실버암보험'

국내 최초 고령자 전용 출시

라이나생명보험이 국내 최초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암보험인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을 출시했다.

61세에서 75세까지의 고령자들이 가입 가능하도록 질병에 대한 무심사를 적용해 고안된 10년 만기 암보험 상품이다. 10년 단위로 갱신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위암, 대장암, 간암 등 일반암(유방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암 치료보험금 최대 2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400만원을 보장받는다.

특히 이 상품은 특약 가입을 통해 특정암(위암, 대장암, 폐암) 또는 고액암(백혈병, 뇌암, 골수암)에 대해서 추가 보장받을 수 있다. 또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과 갑상선암은 진단 확정받았을 때 각각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200만원을 보장 받는다.

문의 080-951-8585 /김지성기자

3분기 상장기업 매출 개선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상장기업 경영분석'을 보면 올해 3분기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5.9%로 전분기 5.3%보다 0.6%포인트 올랐다. 매출액영업이익률 역시 2분기 4.7%에서 3분기 5.7%로 나아졌다. 매출액세전순이익률도 같은 기간 3.8%에서 6.3%로 뛰는 등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 개선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한은 경제통계국 김영현 팀장은 "일부 대기업을 뺀다면 전체 기업의 경영분석 실적은 상당 수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서현기자

CENTER POLE
Swiss Trekking Technology

LOL 패러디 이미지

신규 챔피언

● 서비스 수개월 만에 1위
● PC방 점유율 30% 차지

'제2 e스포츠 르네상스' 이끌다

국내 온라인게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라이엇 게임즈의 '리그 오브 레전드'(이하 LoL)'가 지난 12일로 국내 출시 1주년을 맞았다.

LoL은 공식 출시 전부터 플레이어들이 스스로 북미 서버에 접속해 게임을 즐기는 등 많은 화제를 모았고 국내에 첫선을 보인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온라인게임 순위 1위에 등극한 후 현재까지도 굳건히 그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특히 PC방 점유율 30%를 넘는 수치를 기록하며 20주 이상 1위를 지속하는 등 날로 그 인기가 더해가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북미, 유럽, 중국, 동남아시아, 한국 및 브라질, 터키 등 다양한 국가에서 7000만 명 이상이 LoL을 즐기고 있으며 매일 게임에 접속하는 플레이어의 국가 숫자가 145개국에 달한다. 매일 접속하는 회원수 또한 1200만 명 이상이며 동시 접속자 역시 300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플레이어 중심'이라는 기업 철학을 지닌 라이엇 게임즈는 지난 1년간 한국에서도 플레이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플레이어의 피드백에 귀를 기울이며 한국적인 접근과 노력에 최선을 기울였다.

라이엇 게임즈 '리그 오브 레전드' 국내 출시 1년 돌아보니

지난 9월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챔피언스 섬머리그' 결승 현장에 많은 관람객이 몰린 모습

한국 서비스 시작과 함께 플레이어의 의견을 반영해 구미호 전설을 바탕에 둔 한국형 챔피언(게임 캐릭터) '아리(Ahri)'를 개발해 서비스했고, 이 챔피언의 6개월간 판매금액에 일부를 더한 5억원의 금액을 문화재청에 기부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국립 고궁박물관 리뉴얼 당시 편의시설 확충 및 조선시대 왕실 유물에 대한 보존작업, 플레이어를 위한 역사 교육 프로그램 및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재 지킴이 자원봉사 등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특히 1주년을 맞아 새롭게 선보인 한국형 콘텐츠인 '신바람 탈 샤코' 스킨의 6개월간 판매 수익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기로 발표하는 등 한국의 문화와 문화유산 보호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리그 오브 레전드의 1년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e스포츠로서의 성공이다. 개최하는 대회마다 수많은 관중을 동원하며 스타크래프트의 성공 이후 '제2의 e스포츠 르네상스'를 이끌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8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진행된 '아주부 LoL 더 챔피언스 섬머2012 결승'에는 1만1000여 명의 관객이 운집하는 등 대성황을 이루기도 했다.

여기에 더불어 전국 PC방에서 매주 진행되는 'LoL 전국 PC방 토너먼트' 또한 5월부터 12월 초까지 8000여 명이 참가하는 등 모두가 함께 즐기는 게임으로서 폭발적인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라이엇 게임즈는 e스포츠 시장을 넘어 모든 대중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서의 성장을 위해 리그 오브 레전드 사용자의 저변을 확대하고, 진정한 '스포츠'로서의 성장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오진호 라이엇 게임즈 아시아대표는 "한국 플레이어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플레이어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후지제록스 페이스북 이벤트

후지제록스 프린터스가 페이스북 친구와의 추억을 책으로 제작하는 'Print your Facebook' 이벤트를 진행한다.

후지제록스 프린터스의 공식 페이스북 이벤트 앱 페이지에서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페이스북에서 추억을 함께 나눈 상대를 4명까지 차례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벤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상대와의 추억이 담긴 책(100명) 및 스타벅스 기프티콘(100명)을 증정한다. 또 참여자 전원에게 책을 직접 출력할 수 있는 PDF 파일 및 제본 방법 등을 제공한다.

이벤트 기간은 내년 2월 17일까지이며 내년 1월 17일까지 진행되는 1차 이벤트와 1월 18일부터 2월 17일까지 진행되는 2차 이벤트로 나누어 실시된다. 당첨자 발표는 1월 22일(1차 이벤트)과 2월 22일(2차 이벤트)에 후지제록스 프린터스 페이스북 및 개별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성훈기자 zen@

고독한 겨울산 감싸는 '훈남훈녀' 조건

FILA SPORT

고기능성 방한의류 기본 아웃솔 강한 하이컷 신고 퍼 고소모 쓰면 완전무장

눈부신 설산(雪山)은 아름답지만 저체온증, 낙실 사고 등 곳곳에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휠라코리아의 아웃도어 브랜드 '휠라 스포트'의 이승철 기획실장은 "겨울 산에 오를 때는 방한 의류는 물론 아이젠, 등산 스틱 등 안전 장비를 챙겨 혹한과 폭설에 대처해야 한다"며 겨울 산행 필수품을 소개했다.

한파 속 안전산행 필수 아이템 … 휠라 스포트에 다 있네

◆보온 의류로 저체온증 예방

추운 날에는 저체온증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보온성이 활동성을 갖춘 다운 재킷과 기모 팬츠, 티셔츠 등을 겹쳐 입어 적정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휠라 스포트는 시베리아산 또는 헝가리산 최고급 충전재를 사용해 따뜻하면서도 완벽한 방풍·투습·발수성을 자랑하는 다양한 다운 재킷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브랜드 모델 정일우가 입은 제품은 극한의 자연환경에서도 신체를 보호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스타일까지 만족시켜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 밖에 기모 안감의 팬츠와 스트레치성이 우수한 티셔츠 등이 인기 아이템이다.

◆미끄러짐에 강한 등산화·아이젠

겨울철 등산화를 고를 때는 눈길 미끄러짐에 강한 아웃솔을 사용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방수성, 통풍성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무엇보다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아이젠은 필수다.

휠라 스포트의 '안나슈투'(21만9000원)는 2박 이상의 중·장기 산행용 등산화로 발목까지 감싸주는 하이컷 디자인이라 눈이나 이물질이 신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준다. 또 자체 개발한 옵티-그립 레드 테크 아웃솔을 적용해 접지력이 뛰어나다.

무엇보다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아이젠은 필수다. 어떤 신발에도 완벽하게 착용할 수 있는 휠라 스포트의 아이젠(4만5000원)은 체중을 고르게 분산시키고, 유연성이 뛰어난 밴드를 사용해 안전하다.

◆중심 잡아주는 배낭·등산 스틱

배낭과 등산 스틱은 무게 중심을 잡아줘 미끄러운 등산로에서 안전 보행을 도와준다.

'칼레도니아 45'(18만9000원)는 45ℓ 용량의 중형 백팩으로 당일 및 1박 이상의 중·장거리 산행에 적합하다. 옵티-어센트 등판을 써 장시간 산행에도 등이 편안하고,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어깨 멜빵이 어깨의 통증과 피로를 줄여준다.

하중을 20~30% 덜어주는 등산 스틱 역시 꼭 챙겨야 한다. 휠라 스포트의 등산 스틱(15만원)은 락 장치로 쉽게 풀리지 않고 가벼운 것이 특징이다.

◆머리·목·귀까지 철통 방어

머리와 목, 귀 등 체온을 쉽게 빼앗길 수 있는 부위는 모자나 워머 등 방한 액세서리로 보호한다.

부드러운 퍼 소재를 사용한 퍼 고소모(6만2000원)는 평소에도 착용할 수 있어 실용적이다. 목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니트 퍼 넥워머(2만3000원)와 산행 시에도 쉽게 흘러내리지 않는 니트 이어워머(2만1000원)를 챙기는 것이 좋다.

한편 휠라 스포트는 한 해를 마감하며 전국 매장에서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해피 윈터 페스티벌' 행사를 진행 중이다. 문의 www.filasport.co.kr 02)523-6100

/채신화기자

'육영수 여사의 청와대 식기'

한국도자기가 20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30여 년 전 선택한 청와대 식기를 공개했다. 1973년 청와대에서 사용한 식기는 육영수 여사와 당시 여고생이던 박 당선인이 함께 고른 제품으로 난초 문양을 은빛을 모양으로 도자기에 응용한 디자인이다.

'최화정 심야식당' 요리교실

CJ제일제당 프레시안이 다음달 17일 진행되는 최화정과 함께하는 '심야식당' 쿠킹클래스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쿠킹클래스는 방송인 최화정씨가 직접 강사로 나서,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한 창작 뮤지컬 '심야식당'의 대표 메뉴인 문어 비엔나와 계란말이 등을 프레시안 제품을 활용해 그대로 만든다. 내년 1월 6일까지 CJ 더 키친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문의 www.cjthekitchen.co.kr

가슴쓰림과 소화불량을 동시에 완화[1]

- 타는듯한 복부와 가슴쓰림에 빠르게 느껴지는 효과[2]
- 가슴쓰림을 유발하는 'Acid pocket'을 중화[3]
- 고유의 물리적 방어 층 형성[4]
- 4시간* 지속 효과[1]

아이스크림 케이크 위 '산타와 친구들' 가득

크리스마스의 기분 좋은 설렘을 느끼기엔 케이크만한 것이 없다. 그것도 달콤한 아이스크림까지 입안에서 살살 녹는 아이스크림 케이크라면 연인과 친구, 가족 등 누구나 환영한다. 보기만 해도 즐거워지는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민 아이스크림 케이크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전문점 콜드스톤이 산타와 친구들의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10여 종의 다양한 크리스마스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출시했다. 특히 케이크 결제 금액의 일부를 기부하는 이벤트를 함께 실시해 따뜻한 크리스마스의 뜻을 살린다.

콜드스톤, 크리스마스 테마 케이크 10종 출시

초콜릿·민트·요거트·스트로베리·마카롱 조화 25일까지 결제액 1% 기부 '훈훈한 소비'에 동참

콜드스톤은 이번 겨울 크리스마스 케이크에 즐거운 스토리를 담았다. 산타와 친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 따뜻한 마음을 나눈다는 주제로 귀엽고 발랄하게 디자인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선물을 싣고 친구들을 향해 달려가는 루돌프와 산타 모양의 '산타와 친구들의 크리스마스'는 초콜릿과 민트가 어우러진 상큼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입맛을 사로잡는다.

'메리 베리 요거트'는 상큼한 요거트 아이스크림과 촉촉한 카스텔라가 입안에서 달달하게 녹아내린다. '러브 스트로베리'는 스위트 마카롱과 상큼한 스트로베리 아이스크림이 어우러져 사랑스러운 크리스마스를 표현했다.

또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로보카폴리의 주인공인 폴리와 로이가 함께 장식된 '폴리와 친구들의 크리스마스 파티'도 함께 출시한다.

콜드스톤 관계자는 "모두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크리스마스에 모든 고객들이 산타의 친구가 돼 콜드스톤에서 따뜻한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선착순 1000명에 영화티켓

콜드스톤은 여른 크리스마스케이크처럼 아름다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크리스마스인 25일까지 이번 시즌 대표 제품인 '산타와 친구들의 크리스마스' 케이크 구매 시 결제 금액의 1%를 CJ도너스 캠프에 기부한다. 또한 오늘(21일)부터 25일까지 이 케이크를 사는 선착순 1000명에게 영화 '마이 웨이' 예매권을 덤으로 증정한다. CJ도너스 캠프는 소외계층 아동들의 공부방 교육을 지원하는 CJ그룹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선물도 달콤하다. 25일까지 콜드스톤 케이크를 구매하면 '핫초코 쿠폰'을 증정한다. 문의: www.coldstone.co.kr

/전효순기자

센시아 '정맥순환개선 이벤트'

동국제약 홈피 오늘까지 기혼자 대상 설문…경품

동국제약이 정맥순환장애를 알리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정맥순환개선제 센시아와 함께하는 부부사랑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오늘(21일)까지 동국제약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정맥순환장애 증상에 대해 묻는 간단한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기혼자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동국제약은 22일 당첨자를 발표해 뮤지컬 '김종욱 찾기' 공연 관람권(28일 오후 8시 서울 대학로 예술마당)과 CGV 영화예매권을 각각 100명(1인 2장)씩 총 200명에게 증정할 예정이다. 이벤트 참가자 모두에게 '정맥순환장애의 이해와 관리 방법'이란 안내책자를 제공해 정맥순환장애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

동국제약 마케팅 담당자는 "정맥순환장애 유병률이 높은 40대 이상 중장년층, 특히 여성들이 증상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며 "부부가 센시아로 서로 건강을 챙겨주며 부부 사랑을 표현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전했다.

센시아는 정맥의 탄력 향상과 항산화 효과 등을 통해 정맥순환장애 개선 효과를 나타내는 일반의약품이다. 다수의 임상 연구와 유럽에서의 사용 경험을 통해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문의: www.dkpharm.co.kr

/김민지기자

더페이스샵 희망고 "톤즈야, 웃으렴"

남수단돕기재단에 티셔츠 4000벌·수익금 기부

자연주의 화장품 더페이스샵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희망고 티셔츠'와 할인행사 '희망고데이'의 판매 수익금 일부와 추가 1억원을 (사)희망의 망고나무에 전달한다.

이번에 기부하는 '희망고 티셔츠' 4000벌은 더페이스샵이 지난 9월 보습라인 '망고씨드' 7종 출시를 기념해 제작한 홍보 티셔츠로, 더페이스샵 전국 매장에서 직원이 제품 홍보를 위해 착용했던 것을 회수해 세탁했다.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 지역 주민들의 의복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시즌이 지나 버려지는 티셔츠를 다시 활용할 수 있어 더욱 뜻깊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한 더페이스샵은 올해 5회 진행한 할인행사 '희망고데이'의 판매 수익금 일부에 추가적으로 1억원을 더해 기부한다.

이번 기부는 더페이스샵이 지난 2010년부터 (사)희망의 망고나무와 함께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 지역의 기아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해온 사회공헌활동 '희망의 망고나무' 캠페인의 일환이다. 기부금 전액은 톤즈 지역의 복합교육문화센터 '희망고 빌리지' 건립과 망고나무 묘목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

더페이스샵은 현재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고 캠페인'을 향후 자사가 진출한 해외 시장에도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 글로벌 리딩 브랜드로서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의 책임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박지원기자

www.sdbio.co.kr

소나무야~ 소나무야~

관절청춘을 돌려다오!

대한민국 관절청춘을 위해 조인스틱이 태어났다!

한국식약청에서 인정받은 소나무 유황 MSM함유!

관절건강, 미리미리 관리하세요!

소비자 상담 전화번호 1577-0236

〈전국 대리점 모집〉

대리점 문의 : 1577-0236

신도바이오(주)

펑펑! 산타가 즐거움 뿌려둔 곳

서울랜드 겨울축제 시즌 '크리스마스 파티' 넘치네

서울랜드가 25일까지 겨울축제 '크리스마스 파티'를 진행한다.

이 기간 세계의 광장 골목 전시장은 동네 골목길로 변신한다.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그림 찾기, 딱지먹기 등 어린 시절 즐기던 놀이가 곳곳에서 펼쳐진다.

삼천리 동산에 위치한 캐릭터 하우스에 찾아가면 캐릭터들과 인사도 나누고, 사진도 실컷 찍을 수 있다.

크리스마스 특별 공연 '산타클로스와 스크루지 영감', 산타무용단들과 크리스마스 캐릭터가 함께하는 '장난감 퍼레이드'도 놓쳐선 안 될 볼거리다. 관람객이 직접 무대에 올라 노래와 춤 실력을 뽐내는 '산타 콘' FUN! 장기자랑'도 눈길을 끈다.

22~25일 이벤트홀에서는 판타지쇼가 열린다. 신기한 마술쇼와 스윙댄스, 마임 퍼포먼스에 광대들의 코믹 연기까지 다채로운 공연을 마련했다.

눈썰매장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어린이용 슬로프는 지난해보다 길이를 10m 더 늘렸다. 이용 요금은 3000원. 자유이용권·연간회원권 소지자는 무료다.

할인 혜택도 풍성하다. 신한·BC·KB국민·삼성·외환·NH·시티 제휴카드 회원은 25일까지 자유이용권을 1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문의 02)509-6000 /서지혜기자

'처음처럼' 선정적 동영상 중단

"아이돌 모델, 청소년에 영향" 롯데주류, 서울시 권고 수용

롯데주류가 최근 선정성 논란에 휘말렸던 소주 '처음처럼'의 동영상 광고를 중단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주류 광고모델이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술 광고에 아이돌 모델을 쓰지 말아 달라는 서울시의 자제 권고에 따른 것이다.

롯데주류는 오늘(21일)부터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 온라인에 공개된 포미닛의 현아, 카라의 구하라, 씨스타의 효린이 등장하는 광고 동영상을 내린다.

앞서 롯데주류는 가수 이효리와의 광고모델 계약을 종료한 이후 지난달 아이돌 걸그룹 멤버들을 광고모델로 발탁했다. 이 중 현아의 동영상은 190만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앞으로 동영상을 편집해 수위를 조절하고 성인 인증을 강화하는 등 예방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ejaot@

"나 안 울었어요. 선물 주세요" 20일 롯데월드의 마녀 산타 밴드와 귀여운 캐릭터들이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찾아 입원 어린이 및 가족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눠주고 있다. 롯데월드는 사랑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1995년부터 18년째 어린이병원을 찾아 특별위문공연을 펼치고 있다.

'개비스콘' 클릭하고 소방관 돕고

31일까지 홈피서 기부행사

개비스콘이 오는 31일까지 소방관들을 위한 기부 이벤트를 진행한다. 연말연시를 맞아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고생하는 소방관들과 따뜻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누구나 쉽게 기부 참여가 가능하며 개비스콘의 홈페이지(www.gaviscon.co.kr)에서 간단한 클릭만으로 개인 정보 누출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개비스콘 관계자는 "365일 국민들을 위해 본인의 안전은 뒤로 한 채 열심히 애쓰시는 소방관들에 대한 감사와 보답의 차원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개비스콘은 내년 1월 중 소방관에게 기부금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질 예정이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이벤트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준기자

시선끄는 '무지스타일'…무료배송 행사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무지(MUJI)가 25일까지 크리스마스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지난 10월 리뉴얼 오픈한 서울 소공동 롯데영플라자점 5층 매장을 비롯해 전국의 무지 매장에서 5만원 이상 상품 구매 시 무료로 배송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최근 무지에선 크리스마스 선물을 제안하고 있다. 스킨 케어 시리즈, 초음파 아로마 디퓨저(사진) 가 추천 제품. 또한 롯데영플라자점과 합정점에선 다양한 디자인과 실용성을 갖춘 아동복을 선보이고 있다. 문의 www.mujikorea.net

창사 11 주년
세계를
알립니다

metro entertainment

star bag

달콤한 싱글 '땡큐 포' 발표

JYJ의 김준수가 24일 디지털 싱글 '땡큐 포'를 발표한다.

'땡큐 포'는 일본의 작곡가 겸 음악 프로듀서 시카타의 곡으로 "겨울 정취가 느껴지는 달콤한 사랑 노래다. 연말 공연을 앞두고 팬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로 발표한 곡"이라고 소속사는 전했다. 29~31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단독 공연을 개최한다.

오바마 말춤 안 춘 이유는

싸이가 미국 연예지 더 할리우드 리포터와 인터뷰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9일 '크리스마스 인 워싱턴 자선 공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말춤을 추지 않은 것에 대해 싸이는 "외교적인 것은 전혀 아니다. 그(오바마 대통령)는 '강남스타일' 춤을 잘 추지만 집에 같이 사는 숙녀들이 내가 춤을 추면 당황한다. 그래서 추지 않았다"고 했다.

이병헌과 한솥밥 먹는다

배우 한기인이 BH엔터테인먼트에 새 둥지를 틀고 이병헌과 한솥밥을 먹는다.

소속사 관계자는 20일 "동·서양의 미를 동시에 갖춘 한기인이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전속계약 사실을 알렸다. 앞서 한가인은 드라마 '해를 품은 달' 프로모션차 김수현과 함께 일본을 방문했으며, 최근 중국에서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로스쿨 1차 합격 '화제'

가수 진주가 아주대·중앙대 로스쿨에 1차 합격해 법조인으로 첫발을 내딛는다.

소속사 관계자는 "진주가 로스쿨에서 음악 저작권법이나 문화법을 전공하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진주는 현재 영국 캠브리지에서 주관하는 국제 법률영어(ILEC) 인증 시험을 준비 중이며, 22일 방송되는 KBS2 '블루의 멜곡'으로 활동을 재개한다.

저번엔 상큼발랄 미녀

헬로비너스의 나라·윤조·앨리스·유아라·라임·유영(왼쪽부터)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엔 자유분방 미녀

두번째 앨범 낸 6인조 걸그룹 헬로비너스

'21세기형 비너스'를 표방하는 6인조 여성그룹 헬로비너스가 풍성해진 매력으로 돌아왔다. 유난히 많은 아이돌 그룹이 쏟아졌던 올해 정글과 같은 가요계에서 빛났던 이들은 2013년을 자신의 해로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중·음악성 모두 인정받아

5월 데뷔앨범 '비너스'를 발표하고 뛰어난 비주얼과 가창력, 신인답지 않은 완숙한 퍼포먼스로 대중성과 음악성을 모두 인정받았다. 그러나 폭넓은 인지도를 쌓기에는 역부족이었던 만큼 최근 발표한 두 번째 미니앨범 '오늘 뭐해'에서는 멤버 각자의 뚜렷한 개성을 살리는 데 집중했다.

"'비너스'에서는 상큼 발랄하고, 걸그룹다운 귀여움을 내세우는 데 중점을 뒀어요.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이어가면서도 자유분방한 매력을 더하려고 했어요."

히트 메이커인 조영수·김태현과 김이나가 작곡과 작사를 맡은 '오늘 뭐해'는 소녀 감성의 걸그룹 노래와 차별화를 이룬다.

"당돌하면서 귀여운 고백을 노래한 곡이에요. 약간은 도발적인 태도이기도 하죠. 후훗. 춤이나 표정도 이전의 기계적인 군무가 아니라 각자 개성을 살려 멤버 모두의 매력을 어필하려고 해요."

헬로비너스는 손담비와 애프터스쿨이 소속된 플레디스와 염정아·지진희·허정우·주진모·조윤희 등 정상급 배우들이 포진한 판타지오가 공동으로 제작한 그룹이다.

가요계뿐 아니라 드라마·예능·영화·뮤지컬 등에서 활약할 만능 엔터테이너의 자질을 연습생 시절부터 갈고닦았다. "든든한 회사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어요. 기회만 온다면 언제든지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해 왔어요."

멤버들의 프로필과 포부

★ **유아라**(20) 팀의 메인보컬이자 리더다. 애프터스쿨 제6의 멤버를 찾아라' 오디션에서 뛰어난 가창력과 외모로 선발됐다. 연기 데뷔작인 MBC 시트콤 '엄마가 뿔났다'가 조기 종영하는 아픔을 겪었지만 연기에 대한 큰 포부를 갖게 된 계기였다. "보기만 해도 엔돌핀이 샘솟게 하는 그룹이 되고 싶어요."

> 타이틀곡은 당돌한 고백 노래
> 엔돌핀 솟게 하는 가수 되고파
> 예능서도 숨은 끼 보여줄게요

★ **윤조**(20) 데뷔 전부터 얼짱으로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를 모았다. 데뷔 직전 오른쪽 무릎 인대 부상으로 활동에서 제외됐고, 이번 앨범으로 처음 무대에 서게 됐다. 성악을 전공했고 최근 끝난 KBS2 '남자의 자격-패밀리 합창단'에 출연해 아이비와 솔로 파트를 맡아 활약했다. "헬로비너스의 외모에 치우친 관심을 실력으로 옮겨가도록 노력할 거예요."

★ **라임**(19) 어린 나이답지 않은 힘 있는 랩 실력이 돋보인다. '시를 쓰듯 아름다운 가사를 쓰라'는 의미로 지은 이름이다.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을 비롯해 지금까지 여러 수록곡의 작사와 랩 메이킹에 참여한 실력파 래퍼다. "멤버들이 다양한 개인 활동을 하는 동안 음악 실력을 쌓는 데 집중할 겁니다."

★ **앨리스**(22) 도도하고 차가운 이미지와 달리 재치가 뛰어난 예능 꿈나무다. 수위를 넘나드는 아슬아슬한 발언들로 멤버와 소속사 식구들을 놀라게 한다. "내년에는 가요계에 한 획을 긋고 싶고, 예능에서도 꼭 한번 숨은 끼를 보여주고 싶어요."

★ **나라**(21) 눈에 띄게 작은 얼굴과 뚜렷한 이목구비, 172cm의 큰 키로 '황금비율' '분당 이나영' 등의 별명을 가지고 있다. 만능 스포츠 우먼이기도 한 그는 무술을 배워 액션 연기에 도전하고 싶다는 바람과 함께 "한국의 앤젤리나 졸리가 되고 싶다"는 큰 목표도 밝혔다.

★ **유영**(17) 팀의 막내로 애교가 많고 눈웃음이 매력 포인트다.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 내년에는 해외에도 진출하고 싶어요."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사진/이완기(라운드테이블) 디자인/양성희

'레미제라블' 하루 28만 일일 박스오피스 정상

크리스마스 성수기의 전초전이자 대선 투표를 위한 휴일이었던 19일 극장가의 승자는 '레미제라블'이었다.

20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레미제라블'은 이날 하루 동안 전국에서 28만3881명을 불러 모아 일일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 판타지 블록버스터 '호빗: 뜻밖의 여정'은 20만3225만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 영화들은 할리우드 대작들의 기세에 밀려 다소 힘을 쓰지 못했다. '가문의 영광 5 - 가문의 귀환'과 '반창꼬'는 15만3729명과 14만9225명으로 각각 3·4위에 머물렀다. 이 밖에 애니메이션 '주먹왕 랄프'는 9만6231명을 동원해 5위에 자리했다. /조성준기자

"배우 한계 시험대 오른 기분"

'레미제라블' 휴 잭맨 단독 인터뷰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에서 주인공 장발장을 열연한 할리우드 톱스타 휴 잭맨이 메트로 브라질과 단독으로 만났다. 잭맨은 인터뷰에서 "노래 실력과 미묘한 감정의 전달력, 신체적 강인함 등이 요구됐다"며 "배우로서의 한계를 시험해보는 기회였다"고 털어놨다.

30시간 물 한 모금도 안마셔 혹독한 다이어트·트레이닝 차세대 잭 켈리는 과찬이죠

– 이제껏 할리우드는 휴 잭맨이란 배우를 제대로 써먹지 못했다

지금까지 몸을 많이 쓰는 캐릭터나 액션물의 주인공을 주로 맡아왔다. '엑스맨' 시리즈와 '케이트와 레오폴드'가 대표적이다. 아마도 대부분의 감독과 제작자들이 잭맨이가 섬격한 배우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내 외모와 노래 솜씨를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다행히 올 후퍼 감독이 나 말고는 장발장을 연기할 배우가 없다고 믿은 것 같다.

–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것 같다

전과를 숨기고 여러 개의 신분으로 위장한 채 살아가는 캐릭터였으므로 엄청난 준비가 필요했다. 우선 1488페이지나 되는 장대한 분량의 원작 소설을 두 번 읽었다. 또 촬영 전 석 달간의 혹독한 다이어트와 트레이닝을 거쳤다. 마지막 36시간 동안은 "누군지 못 알아볼 정도의 몰골이 돼야 한다"는 감독의 요구로 물 한 모금 안 마셨다.

– 매 장면 립싱크가 아닌 라이브로 노래했다

9주에 걸쳐 리허설을 소화했다. 9주는 웬만한 영화 한 편 찍을 시간 아닌가! 나를 포함해 앤 해서웨이와 아만다 사이프리드, 러셀 크로, 에디 레드메인 등 출연진 모두에게 캐릭터 변신만큼이나 고된 작업이었다.

– 제작비가 6100만 달러(약 654억원)나 투입됐다. 흥행에 대한 부담은?

모든 출연작이 그렇지만 솔직히 크다. 동명의 뮤지컬은 브로드웨이 사상 세 번째로 장기 공연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소설 역시 1862년 첫 출간 당시 큰 성공을 거뒀다. 영화도 뮤지컬과 소설에 버금가는 성공을 거두길 바란다.

– 내년 골든글로브와 아카데미에서 주요 부문의 유력한 수상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뮤지컬 영화가 위험한 장르란 걸 잘 알고 있다. 뮤지컬 영화는 모든 게 맞아떨어져야 한다. 연기·연출·촬영·음악 가운데 한 가지만 실패해도 큰 흠으로 남기 때문이다. 그러나 잘 만들어진 뮤지컬 영화는 보는 이들의 영혼에 고귀한 감동을 준다.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한다.

– 이제 당신을 '캐리 그랜트를 닮은 차세대 진 켈리'로 불러도 좋을 듯싶다

과찬의 말씀! 이번 작품이 배우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레미제라블'속 나로 인해 할리우드에서 새로운 남자 주인공의 원형이 탄생한다면 정말로 행복할 것이다. 또 ('캐리 그랜트를 닮은 차세대 진 켈리') 계보의 출발점으로 인정받길 희망한다. /메트로 브라질

연인은 '나의 PS파트너' 가족은 '호빗' 어때요

크리스마스 극장가, 볼만한 영화 뭐가 있나

이번 주말을 시작으로 일 년 중 극장가의 최대 성수기인 크리스마스 시즌에 돌입한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한파에 극심한 불경기로 호주머니마저 홀쭉해진 요즘, 그나마 마음 편히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는 장소는 극장 밖에 많지 않다. 연인끼리 혹은 가족이 볼 만한 영화는 무엇이 있을까.

▶ 멜로물 원한다면

고수·한효주 주연의 멜로물 '반창꼬'와 지성·김아중 주연의 19금 로맨틱 코미디 '나의 PS파트너'는 연인 관객들을 위한 '맞춤 상품'이다.

아내를 잃고 까칠해진 소방관에게 마구 들이대는 여의사의 경쾌한 사랑 이야기를 그린 '반창꼬'와 폰섹스로 우연히 맺어진 남녀의 좌충우돌 연인 되기를 다룬 '나의 …'모두 손발이 오그라들 만큼 관습적인 표현이 자주 등장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보기에 부담이 없다.

두 작품처럼 밝지는 않지만 좀 더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멜로물을 원한다면 '원데이'를 추천한다. 사랑하면서도 20년 동안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는 두 남녀의 엇갈린 행보가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 신나게 웃고 싶다면

쉴 때는 신나게 웃고 때려 부수는 영화를 섞어야 … '가문의 영광 5 - 가문의 귀환'과 '타워'가 어울린다. '가문의…'는 조폭 코미디의 전성시대를 열었던 1편의 주요 출연진이 10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 역시나 완성도를 배제한(?) 웃음으로 도배됐다.

타워

25일 개봉될 '타워'는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된 화재 블록버스터다. 초고층 주상복합 빌딩의 화재에 맞선 인간들의 사투를 감동적으로 담아낸다. 최첨단 컴퓨터그래픽(CG)과 실사로 빚어낸 대참사가 꽤 그럴싸하다. 할리우드 재난 블록버스터의 원조 '타워링'을 재미있게 봤던 중장년층은 예전의 추억을 떠올리기에 적합할 것이다.

▶ 수작 만나보고 싶다면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과 판타지 블록버스터 '호빗: 뜻밖의 여정'은 완성도와 재미, 메시지를 두루 갖춘 수작이다. 할리우드 대작치곤 드물게 폭력적인 요소가 많지 않아 다양한 연령대로 꾸민 가족 관객이 함께 관람하기에 적합하다.

아무르

레미제라블

올해 칸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의 영예인 황금종려상을 거머쥔 '아무르'와 베를린 국제영화제 각본·남우주연상 수상작인 '로얄 어페어'는 유럽 예술영화를 선호하는 관객들이 놓쳐서는 안 될 수작이다. '아무르'는 아내의 치매로 마지막 선택의 갈림길에 선 남편의 아픔을, '로얄…'은 덴마크 왕실의 음모를 각각 이야기한다. 모두가 들뜨기 쉬운 연말에 한 번쯤은 지나온 인생을 깊이 되돌아볼 수 있게 질문을 던지는 작품들이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씨엔블루 오리콘 2위…하루 2만장

아이돌 밴드 씨엔블루가 국내 컴백을 앞두고 일본 시장을 강타했다.

이들은 19일 새 싱글 '로봇'을 발표해 하루 동안 2만4001장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오리콘 일간 차트 2위에 올랐다. 인기 여성 아이돌 그룹 노기자카46에 정상을 내줬지만 걸그룹 베리즈코보, 록밴드 디르 앙 그레이 등 국내에도 많은 팬을 보유한 각트 등을 제쳐 주목받았다.

특히 이번 앨범 타이틀곡 '로봇'과 수록곡 '링'은 정용화의 자작곡이며 수록곡인 '스탠딩 나잇'은 이종현의 자작곡이라 의미를 더했다.

정용화·강민혁·이종현·이정신 등 멤버 전원이 연기활동으로 성공을 거둔 씨엔블루는 다음달 14일 새 음반을 들고 국내 가요계에 컴백한다. /윤순호기자

시청률 KBS 콘텐츠 SBS

대선 개표방송 성적표

지상파 3사의 18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개표방송 성적표가 공개됐다.

1위는 전국 시청률 15.1%(AGB 닐슨미디어리서치)를 기록한 전통의 강호 KBS가 차지했다. SBS가 8.9%로 뒤를 이었고 MBC는 4.6%에 그쳤다.

KBS는 지시 예측 시스템 '디시전 K'를 통해 가장 먼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 확실을 보도하며 정확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각 후보의 특징을 '소속부대', '주무기'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한 3D 영상도 눈길을 끌었으며 세종로 KT 광화문 사옥 외벽을 스크린으로 활용한 영상기법 '미디어 파사드'도 호평을 받았다.

SBS는 네티즌과 젊은 시청층을 사로잡았다. 다양한 특수효과와 함께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과 영화 '친구', 스포츠 경기 등을 총동원한 그래픽과 정보 전달이 참신했다는 평가다.

KBS

캐나다 신문 글로브 앤 메일의 특파원 마크 매키넌은 트위터에 SBS 개표방송 캡처 사진을 올리면서 "한국의 선거방송을 보고 나니 다시는 CNN을 보지 못하겠다"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반면 MBC는 4.11 총선 개표방송 꼴찌의 굴욕을 만회하기 위해 광화문에 투명 야외세트를 설치하고 후보의 모든 공식석상 발언을 분석한 '빅 데이터'를 공개하는 등 안간힘을 기했으나 별 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다.

한편 뉴스 전문 채널 YTN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당선인 예측조사를 보도했으나 예측이 정확하지 못해 시청자에게 혼선을 드렸다"면서 시과 방송을 송출했다. 앞서 YTN은 문재인 후보가 49.7~53.5%, 박근혜 후보가 46.1~49.9%의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권보람기자 kwon@metroseoul.co.kr

소시·카라 日인기 변함없네!

연 매출순위 7·9위 차지 합친 금액 1000억원 육박

걸그룹 쌍두마차 소녀시대와 카라가 냉랭한 반한류 분위기에서도 올해 일본에서 변함없는 인기를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오리콘이 발표한 2012년(2011년 12월 26일~2012년 12월 17일 기준) 연간 아티스트별 총 매출 순위에서 소녀시대와 카라는 각각 7위와 9위를 차지했다. 소녀시대는 올해 싱글·정규앨범·CD·DVD·블루레이 등을 합쳐 43억3200만 엔(약 55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카라는 34억1600만 엔(약 43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일본에서 K-팝의 인기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지난해에는 카라가 49억2600만 엔(약 628억원), 소녀시대가 40억4900만 엔(약 516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각각 아티스트별 총 매출 순위 4위와 5위를 기록했다.

소녀시대

카라

올해는 한·일 외교의 긴장 관계가 문화계에까지 영향을 미쳐 지난해와 같이 활발히 현지 활동을 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DVD 판매 등에서 호조를 보이며 매출 감소폭을 최소화했다.

한편 소녀시대는 20일 오전 공식 트위터에 "2012.12.21 10A.M."이라는 글을 올리며 국내 컴백을 예고했다. 이들은 14개월 만의 새 앨범을 다음달 초에 발표하며 이에 앞서 21일 수록곡을 선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순호기자 suno@

CITY NIGHTCLUB
U
LUXURY
U-CITY NIGHTCLUB
02)542-1035~6

투표율 족집게 예언 남희석 '이럴수가…'

대선 후 스타들 인증과 행보

19일 치러진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다양한 인증샷과 투표율 공약, 정치 참여로 주목받았던 스타들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 후에도 각양각색의 행보와 소감으로 눈길을 끌었다.

먼저 19일 SBS 개표 방송 '2012 국민의 선택'에 출연했던 개그맨 남희석이 투표율을 소수점 자리까지 맞춰 화제를 모았다. 당시 그는 "투표율이 75.8%를 넘으면 SBS 8시 뉴스를 5년 동안 출연료도 받지 않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는데, 이후 최종 투표율이 75.8%로 집계됐다. 이에 네티즌들은 장난스럽게 '남희석 무당설'을 제기했고, 남희석은 트위터를 통해 "작두 누가 갈아놓은 거냐"면서 으쓱해했다.

가수 은지원은 박 당선인의 5촌 조카라는 이유로 선거 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선거운동 기간 박 당선인의 유세 현장에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 바 있어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됐으나 일단 21일 신곡을 발표하고 가수 활동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스타들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새 대통령에 대한 축하와 당부 글을 남겼다. 배우 신현준은 "국민과 늘 소통하는 다가가기 편한 온유하고 따뜻한 책임감 있는 대통령이 돼 달라"고 말했고, 가수 박기영은 "박근혜 후보님, 정말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이 나라와 국민을 아껴주시길 기대해 봅니다"라는 바람을 전했다.

아쉽게 낙선한 문재인 후보를 격려하는 스타들도 있었다. 찬조 연설을 통해 문 후보를 공개 지지한 배우 김여진은 "2012년의 대한민국의 선택, 아프고, 무겁고, 존중합니다"라고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방송인 김제동은 "여러 가지로 신경 쓰느라 마음껏 사랑하고 지지한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다. 고생 많으셨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스타들은 발빠르게 공약 실행에 나서기도 했다. KBS2 '개그콘서트'의 인기 코너 '용감한 녀석들'은 투표율 70%가 넘으면 70쌍의 예비 부부에게 공짜로 결혼식 축가를 불러주겠다던 공약을 지키기로 했다. 멤버 박성광은 트위터에 "첫 번째 축가 당선자님은 경북 영주에 계신 신모씨다. 필요할 때 인증샷을 올리겠다"는 글을 남겼다.

/박선영기자 sak0477@metroseoul.co.kr

김민준 돌연 연기중단…왜?

"수년 전부터 고민… 선거와는 무관"

배우 김민준이 돌연 연기 중단을 선언했다.

그는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몇 해 전부터 고민한 끝에 하필 우연히도 오늘 결정을 했다. 혹시 대선과 연관 지어 오해가 있을까 걱정"이라면서 "다시 연기할 이유가 생길 때까지 연기자는 폐업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덧붙여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꼭 하고 싶은 말을 오랜만에 트위터로 올린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활동 중단 선언에 소속사 관계자는 "그동안 작품 활동을 많이 해 휴식기를 가지며 어학 공부 등 하고 싶은 것을 하려는 것일 뿐, 은퇴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가 MC로 활동하고 있는 남성전문채널 XTM '옴므 4.0'은 내년 1월 9일까지 방송된다.

/김보영기자 kaoo@

춤·유머로 어리석음 꼬집다

창단 2주년 국립현대무용단 국립극장서 '아Q' 공연 개최

창단 2년을 맞은 국립현대무용단이 홍승엽 예술감독의 '아Q'로 국립극장 첫 나들이를 한다.

중국 현대문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루쉰의 '아Q정전'을 모티브로 한 이 작품은 국립극장 레퍼토리 시즌 프로그램으로 초청돼 27~30일 국립극장 KB청소년 하늘극장에서 공연한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비극적 인생를 홍 감독 특유의 세련된 안무 감각과 유머로 풀어내고, 꽃·쌀·고깔 등의 다양한 소품, 디드놀이를 형상화한 무대, 감성을 자극하는 음악 등으로 원작과 다른 재미를 준다.

지난 2006년 LG아트센터에서 초연됐으며, 2007년 뉴욕 공연기획자협의회(APAP) 초청 공연, 2008년 싱가포르 아트페스티벌, 같은 해 주영한국문화원 초청 런던 공연을 가진 바 있다.

홍 감독은 '아Q' 외에도 이외수의 '벽오금학도',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라쇼몽' 등 소설을 무대화하며 세계 언론으로부터 '안무의 시적인 운동 언어', '독창적인 움직임과 양상블의 귀재' 등의 격찬을 받았다.

제작진은 "'아Q정전'의 주인공 아큐는 한국 근현대사의 질곡을 지나오며 온갖 이념과 자유가 난무하는 어지러운 사회에 노출된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다"고 제작 의도를 설명했다. 문의 02)3472-1420

/박선영기자 rusi427@metroseoul.co.kr

알라딘·백설공주 총출동 화려한 '디즈니 아이스쇼'

디즈니가 탄생시킨 아름다운 캐릭터들이 은반 위에서 화려한 아이스쇼를 펼친다.

다음달 16~20일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리는 '디즈니 온 아이스-프린세스 & 히어로즈'는 세계적인 공연기획사인 '펠드(Feld) 엔터테인먼트'의 야심작으로 그동안 70여 개국을 투어하며 2억80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모았다. 국내 방문은 2006년 이후 8년 만이다.

무대는 귀여운 요정 팅커벨이 마법의 문을 열면서 시작된다. 이어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알라딘과 자스민 공주, 모험을 갈망하는 '미녀와 야수'의 벨과 야수, 인어공주, 신데렐라, 백설공주, 잠자는 숲 속의 공주 등 상상 속에만 존재하던 애니메이션 속 프린세스와 히어로즈들이 차례로 눈앞에 되살아난다.

이들은 월드클래스급의 스케이팅과 현란한 아크로바틱을 선보이고 링크장 위에 설치된 6m 높이의 거대 희염 용과 싸우는 등 가족 관객을 동화 속 세계로 안내한다. 문의 1544-8097

/정인영기자 n3ure@

wind5686@naver.com

인체조직기증 동참하세요

연극 '레미제라블' 희망서약 캠페인

연극 '레미제라블'이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와 함께 희망 서약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공연이 열리는 30일까지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 마련된 부스에서 관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공연 첫날인 19일 미종인 종기희자, 자베르 역의 배우 최재성 등을 비롯한 여러 배우들이 인체조직기증에 서약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작품은 장발장 등 등장인물에 초점을 맞춘 원작 소설과 달리 프랑스 혁명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부각했다. 큰 규모와 흥행성으로 지난해 초연 당시 연극계에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캠페인을 기념해 페이스북(www.facebook.com/happydonation)에서는 21~25일 퀴즈 게시글에 댓글을 남기면 10명을 추첨해 관람 티켓 2매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열린다.

/박선영기자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통문장 학습법의 창시자 코넬리우스의 4단계 기초회화 훈련법

Day 1 Hello 인사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1
본 지면은 New English 900 Vol.1의 서브입니다.

긴 대화 훈련

▶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어 다음 대화를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A Good evening.
B Good evening. 저는 잭 스미스라고 합니다.
A 저는 헤리 존스예요. How are you?
B Very well, thanks. And you?
A 덕분에 잘 지냅니다.

정답 I'm Jack Smith. / I'm Henry Jones. / Fine, thank you.

생생영어팁

▶ 참~ 좋은 인사

사실 우리가 중학교 교과서에서 일찌감치 배워둔 다음 문장들은 그 자체로 아주 훌륭하고 좋은 인사표현입니다.

A How are you?
B I'm fine, thanks. And you?
A I'm fine, too.

그런데 I'm fine, thanks. And you?를 마치 한 단어인 것처럼 이어서 말하는 경우가 있어서 종종 웃음거리가 되곤 하는데요. fine과 thanks 사이에서는 약간의 숨을 쉬세요. thanks는 우리말로 '덕분에요' 와 같은 의미니까요. 또 약간 쉰 다음에는 And you? 또는 How about yourself? 또는 And how are you?라고 상대의 안부를 묻는 질문이 이어져야 합니다.

TOEIC Reading ▶ ETS TOEIC Reading Prep Book

01 Customers who purchase a new appliance from Mahmud's Home Store have _______ one month to exchange it.
(A) as of (B) within
(C) up to (D) above

02 Mr. Demha, the company's new CEO, acknowledged that there was a possibility, _______ remote, that the merger would not go through as planned.
(A) slowly (B) down
(C) much (D) however

01. 마흐무드 홈 스토어에서 새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은 최대 1개월까지 제품을 교환할 수 있다.
정답 (C) up to

02 그 회사의 신임 최고경영자인 뎀하 씨는 ... 그 합병이 계획대로 성사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정답 (D) [illegible]

TOEIC Speaking ▶ ETS TOEIC Speaking Prep Book

Part 3 듣고, 질문에 답하기

What 의문문

Q: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you look for in a job?

A: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I look for in a job is the pay. 급여
the benefits 복지 혜택
the working hours 근무 시간

Q: What kinds of shoes do you usually wear to work or school?

A: When I go to work, I usually wear sneakers. 운동화
high heels 하이 힐
dress shoes. 정장 구두

홍상삼 발목 골절상 수술

6~8주 재활 진단… 내년 WBC 마운드 운영 차질 예상

홍상삼(22·두산·사진)이 갑작스러운 발목 골절상을 입으며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의 마운드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됐다.

홍상삼은 18일 잠실구장에서 개인훈련을 하던 실내 연습장이 아닌 그라운드를 러닝하던 도중 얼음이 녹지 않은 부위를 잘못 밟아 오른 발목을 접질리는 부상을 당했다. 검진 결과 오른 발목 골절상으로 밝혀졌다.

두산 구단 관계자는 "다행히 부상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 6~8주 정도 재활을 하면 될 것 같다. 빠르면 전지훈련 중반인 2월 초중순쯤 훈련에 합류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전했다.

이로써 내년 3월 2일 개막하는 WBC 본선에 홍상삼의 출전은 불투명해졌다.

현재 대표팀은 봉중근(LG)이 이미 전력에서 빠져 있다. 류현진, 김광현 등 주축 투수들의 출전도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국가대표급 셋업맨 홍상삼까지 빠지면 타격이 크다.

홍상삼은 올해 22홀드를 기록하며 특급 셋업맨으로 올라섰다. 생애 첫 태극마크를 달고 내년 WBC에서 맹활약할 기대에 부풀어 있었던 그는 일단 재활에 전념한 뒤 컨디션을 끌어올려 WBC에 반드시 합류하겠다는 각오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정대세 절대 양보 못한다"

대전-수원, 영입놓고 신경전

프로축구 K리그 수원 삼성과 대전 시티즌이 '인민루니' 정대세(사진)의 영입을 놓고 막판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앞서 수원이 정대세와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대전 전종구 사장은 20일 "정대세의 활용 가치를 생각하면 몸값을 흥정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FC쾰른이 제시한 30만 달러(약 3억2천 만 원)+α를 협의 없이 완전 이적료로 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18일 독일 쾰른까지 날아가 현지에서 정대세를 만난 전 사장은 대전에서 정대세가 당장 구단의 스타로 주목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호소했다.

대전의 이 같은 영입공세에 수원은 "그동안 우리 측과 협상을 해오고 있었는데 대전이 갑자기 제3자로 끼어들었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는 한편 "FC쾰른에 이적료로 30만 달러를 주고 정대세를 완전 이적 시켜 3년 계약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정대세도 대전보다 수원에 마음이 쏠려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강타 막아라" 20일 경기도 성남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2012~2013 V리그 여자부 도로공사와 흥국생명 경기에서 흥국생명 김혜진이 도로공사 이보람의 공격을 블로킹 하고 있다. 이날 도로공사는 흥국생명을 3-0으로 완파했다. 충남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남자부 경기에서는 대한항공이 현대캐피탈에 3-1 역전승을 거뒀다. /뉴시스

최나연 사회단체 1억 기부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올라

이자골프 세계랭킹 2위 최나연(25·사진)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1억원 이상 개인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

최나연은 20일 서울 을지로 교원내외빌딩에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 기부를 약정했다. 이로써 그는 홍명보 전 올림픽 축구대표팀 감독과 프로야구 한화의 김태균에 이어 스포츠 스타로는 세 번째로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에 이름을 올렸다.

/김민준기자

NC 용병 웰크·쉬렉 영입

좌완·우완 투수… 내년 원투펀치 기대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메이저리그 출신 왼손 투수 애덤 웰크(25)와 오른손 투수 찰리 쉬렉(25)을 영입했다.

NC는 20일 이들과 각각 계약금 5만 달러를 포함해 총액 30만 달러(약 3억2000만원)에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신장 188㎝, 체중 82㎏의 좋은 체격 조건을 갖춘 웰크는 2009년 드래프트 11라운드로 디트로이트에 지명돼 입단한 뒤 마이너리그 팀에서 4년간 던졌다. 2011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해 2년간 24⅓이닝을 소화하며 0승3패, 방어율 6.66을 기록했다. 마이너리그에서는 통산 83경기에 나서 30승23패, 방어율 2.66을 올렸다.

NC 관계자는 "웰크는 좋은 제구력을 갖추고 있고, 디트로이트 유망주 랭킹 10위에 오를 정도로 잠재력이 많은 투수"라며 "외국인 1선발로 활약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쉬렉은 2007년 신인 드래프트 23라운드로 시카고 화이트삭스에 지명돼 마이너리그에서만 6년 동안 활동했다. 통산 131경기에서 620이닝 동안 37승27패, 방어율 3.82를 기록했다.

직구·변화구 제인지업을 구사하는 우완 정통파 투수로 웰크와 함께 내년 시즌 선발진의 한 축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생 팀으로 3명의 외국인 용병을 보유할 수 있는 NC는 남은 용병도 투수로 채울 계획이다. /김민준기자

찰리 쉬렉 · 애덤 웰크

앤서니·소사 KIA와 재계약

KIA 타이거즈가 외국인 용병 앤서니 르루(30·사진)와 헨리 소사(27)를 붙잡는 데 성공했다.

KIA는 앤서니와는 37만5000달러(계약금 7만5000달러·연봉 30만 달러), 소사와는 30만 달러(계약금 5만 달러·연봉 25만 달러)에 재계약을 맺었다. 올해 연봉보다 25% 상승한 금액이다.

앤서니는 올해 32경기에 등판해 171⅔이닝을 소화하며 11승13패1세이브 방어율 3.83을 기록했다. 시즌 중 합류한 소사는 9승8패 방어율 3.54를 올리며 준수한 활약을 펼쳤다. /김민준기자

WINTER SALE
일부 품목 한정, 여성 니트 7,000원~, 남성 재킷 19,000원~, 아동 니트 7,000원~, 아동 액세서리 3,000원~